

증권사, 석유화학 전망 “एं터리”

롯데케미칼 · 금호석유화학 주가 하락 ... 긍정적 전망 일관

증권사들이 석유화학 경기를 긍정적으로 예곡해 매수를 권유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석유화학제품 공급이 정기보수로 감소하는 반면 수요는 증가해 석유화학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에 수요 부진으로 재고가 증가했고 북미 · 유럽 경기 회복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석유화학을 대표하는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3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영업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면 매수를 권유했다.

유진투자증권은 2014년 석유화학 시장을 완만한 회복세로 예상했으며 유럽, 미국, 중국 수요 개선에 따라 석유화학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양증권도 2014년 2월 중순부터 아시아 대형 NCC(Naphtha Cracking Center)의 정기보수가 이어지고 있어 나프타(Naphtha) 구매 축소에 따른 원가 절감 및 석유화학제품 공급 축소로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4분기에는 성장이 부진하나 2/4분기에는 영업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도 2014년 3월19일 전망보고서에서 4월부터 석유화학 상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국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돼 예상이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투자증권은 2014년 1월9일 분석

보고서에서 상반기 석유화학 시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 사이클 회복이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중장기적인 사이클이 회복되면 롯데케미칼의 주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평가했다.

KB투자증권도 2013년 11월12일 전망보고서에서 LG화학의 목표주가를 37만원, 롯데케미칼 22만5000원, 금호석유화학은 11만원으로 평가했다.

특히, 최선호주로 롯데케미칼을 제시했으며 P-X(Para-Xylene) 공급 확대에 따른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의 수익성 개선으로 추가적인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P-X는 2014년 공급과잉이 악화돼 2014년 3월 1100달러대로 폭락했으며 중국의 PTA 플랜트 가동률이 60~70%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롯데케미칼도 영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케미칼 주가는 2014년 1월2일 22만4500원에서 2월12일 22만6500원으로 상승했으나 5월12일 15만900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6월 말에는 18만원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4년 초에 비해 약 4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투자증권은 1월28일 LG화학 목표주가를 38만원에서 35만원으로 하향조정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G화학은 1월2일 29만2000원에서 3월21일 23만9500원으로 급락했으며 6월 말 회복세를 이어가 29만원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LG화학이 3D편광필름을 출시하고 ITO(Indium Tin Oxide) 필름 No.2 라인 증설로 전자소재 부문에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으나 디스플레이 시장 부진이 계속돼 수익성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LG화학의 목표주가로 36만원을 제시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이엠투자증권은 2014년 석유화학 사이클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유럽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국경기도 호조를 띄어 석유화학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최선호주로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을 추천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1월2일 주당 9만2500원에서 2월19일 9만4600원으로 상승한 후 6월5일 8만원으로 추락했고 6월 말에는 8만8000원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 관계자는 “대부분 애널리스트는 관련기업 IR 담당자를 만나고 있으며 IR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그대로 신뢰해 전망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해외 및 국내 석유화학 전망보고서를 구입해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적인 보고서는 제외하고 긍정적 평가 위주로 전망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

〈허웅 기자〉